

언어와 매체 영역의 '지문 제시형 문제' 35~36번은 발문 먼저 본다. '문법'문제는 지식형 문제이니 지문을 안 읽고도 풀 만한 것은 풀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 지문을 읽어야 마저 풀 수 있다. (대체로 35번은 지문의 앞부분과, 36번은 지문의 뒷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공'과 '콩'의 소리를 듣고 두 단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어두에서 실현되는 'ㄱ'와 'ㅋ'가 의미를 구별해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 한다. 그럼 '가구'에서 발음되는 두 'ㄱ'는 같은 소리일까? '가구'의 첫음절의 'ㄱ'는 성대의 울림이 없는 무성음 [k]이고, 둘째 음절의 'ㄱ'는 앞 모음의 영향을 받아 성대의 울림이 있는 유성음 [g]로 실현된다. 하지만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 여부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k]와 [g]를 하나의 음운 'ㄱ'로 인식한다. 이처럼 한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소리들을 변이음이라 하며,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출현 위치가 서로 겹치지 않는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예컨대 파열음 'ㄷ, ㅌ, ㄱ'는 어두에서는 무성음 [p, t, k]로 실현된다. 반면 모음과 모음 사이, 비음 'ㄹ, ㄴ, ㅇ'과 모음 사이, 유음 'ㄹ'과 모음 사이에서는 유성음 [b, d, g]로 실현된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에도 나타난다. 예컨대 '웃'은 조사가 결합되는 환경에서 '웃+이[오시]', '웃+도[은포]', '웃+만[은만]'처럼 '웃'의 소리가 [웃], [온], [은]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을 이형태라 한다.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의미 차이를 만들지 않고,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며, 나타나는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한 음운의 변이음들을 하나의 동일한 음운으로,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을 하나의 동일한 형태소로 인식한다. 한편,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은 일어나는 동기에 따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가 나뉜다. 예컨대 '빚다'의 '빚-'에 비음 외의 자음이 결합되면 [빔], 비음이 결합되면 [빔]으로 교체된다. 이는 국어에서 종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되고, 자음 'ㄷ, ㄷ, ㄱ'가 'ㄹ, ㄴ'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는 자동적 교체이다. 반면, '(허리가) 굽다'의 '굽-'에 모음 '-어'가 결합될 때 [구버]가 되는 것처럼, 국어에서 'ㄷ'와 모음이 결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굽다'의 '굽-'이 동일한 환경에서 [구워]의 '구우'로 교체되는 것은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비자동적 교체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역시 '윗글을 바탕으로' 풀기로 한다.

<p><자료1>은 음운 'ㄷ, ㅌ, ㄱ'가 환경에 따라 실현되는 소리가 달라지는 단어들이고, <자료2>는 종성에 'ㄷ, ㄷ, ㄱ'를 갖는 형태소들이 환경에 따라 형태를 달리 하는 교체의 예들이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료1></th> <th><자료2></th> </tr> </thead> <tbody> <tr> <td>㉠ 바지, 후보</td> <td>○잡+아[자바], 잡+는[잡는], 잡+고[잡꼬] ○츙+어[추워], 츙+은[추운], 츙+고[츙꼬]</td> </tr> <tr> <td>㉡ 더위, 온도</td> <td>○닫+아[다다], 닫+는[닫는], 닫+고[닫꼬] ○뜰+어[드러], 뜰+는[뜰는], 뜰+고[뜰꼬]</td> </tr> <tr> <td>㉢ 거위, 인고</td> <td>○먹+어[머거], 먹+는[명는], 먹+고[먹꼬]</td> </tr> </tbody> </table>	<자료1>	<자료2>	㉠ 바지, 후보	○잡+아[자바], 잡+는[잡는], 잡+고[잡꼬] ○츙+어[추워], 츙+은[추운], 츙+고[츙꼬]	㉡ 더위, 온도	○닫+아[다다], 닫+는[닫는], 닫+고[닫꼬] ○뜰+어[드러], 뜰+는[뜰는], 뜰+고[뜰꼬]	㉢ 거위, 인고	○먹+어[머거], 먹+는[명는], 먹+고[먹꼬]
<자료1>	<자료2>								
㉠ 바지, 후보	○잡+아[자바], 잡+는[잡는], 잡+고[잡꼬] ○츙+어[추워], 츙+은[추운], 츙+고[츙꼬]								
㉡ 더위, 온도	○닫+아[다다], 닫+는[닫는], 닫+고[닫꼬] ○뜰+어[드러], 뜰+는[뜰는], 뜰+고[뜰꼬]								
㉢ 거위, 인고	○먹+어[머거], 먹+는[명는], 먹+고[먹꼬]								

- ① ㉠의 '후보'의 [ㅂ]와 달리, ㉠ '바지'의 [ㅂ], ㉡ '온도'의 [ㄷ], ㉢ '인고'의 [ㄱ]는 모두 무성음으로 실현된다.
- ② ㉠의 '잡+아[자바], 잡+는[잡는], 잡+고[잡꼬]'에서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리 나타난 '잡'과 '잡'은 서로 다른 형태소이다.
- ③ ㉡의 '더위'와 ㉢의 '거위'에서 'ㄷ'와 'ㄱ'는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고, ㉢의 '먹'과 '명'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 ④ ㉡에서 [닫는]의 '닫', [드러]의 '뜰', [뜰는]의 '뜰'은 모두, 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 ⑤ ㉢의 [명는]의 '명', ㉠의 [추운]의 '추우'는 모두, 비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10차 요소 (문법은 주로 주체, 대상, 조건, 서술어)에 괄호나 밑줄을 그어 가면서 다음 지문을 빨리 읽자.

3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법적 지식이나**

문법적 상상력이 있다면 바로 풀어도 된다. 그러나 발문의 요구처럼 지문을 다 읽은 후 '윗글을 이해'한 후 푸는 게 빠르다.

- ① '가구'의 두 'ㄱ'는 하나의 동일한 음운이다.
- ②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준다.
- ③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 ④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⑤ 교체는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다.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공’과 ‘콩’의 소리를 듣고 두 단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어두에서 실현되는 ‘ㄱ’과 ‘ㅋ’가 의미를 구별해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 한다. 그럼 ‘가구’에서 발음되는 두 ‘ㄱ’는 같은 소리일까? ‘가구’의 첫음절의 ‘ㄱ’는 성대의 울림이 없는 무성음 [k]이고, 둘째 음절의 ‘ㄱ’는 앞 모음의 영향을 받아 성대의 울림이 있는 유성음 [g]로 실현된다. 하지만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 여부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k]와 [g]를 하나의 음운 ‘ㄱ’로 인식한다. 이처럼 한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소리들을 (변이음)이라 하며,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출현 위치가 서로 겹치지 않는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예컨대 파열음 ‘ㅂ, ㅅ, ㅈ’는 어두에서는 무성음 [p, t, k]로 실현된다. 반면 모음과 모음 사이, 비음 ‘ㅁ, ㄴ, ㅇ’과 모음 사이, 유음 ‘ㄹ’과 모음 사이에서는 유성음 [b, d, g]로 실현된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에도 나타난다. 예컨대 ‘웃’은 조사가 결합되는 환경에서 ‘웃+이[오시]’, ‘웃+도[온포]’, ‘웃+만[온만]’처럼 ‘웃’의 소리가 [웃], [온], [온]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을 (이형태)라 한다.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의미 차이를 만들지 않고,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며, 나타나는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한 음운의 변이음들을) 하나의 동일한 음운으로,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을) 하나의 동일한 형태소로 인식한다. 한편,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은 일어나는 동기에 따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뉜다. 예컨대 ‘빛다’의 ‘빛-’에 비음 외의 자음이 결합되면 [빔], 비음이 결합되면 [빔]으로 교체된다. 이는 국어에서 종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되고, 자음 ‘ㅂ, ㅅ, ㅈ’가 ‘ㅁ, ㄴ’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는 (자동적 교체)이다. 반면, ‘(허리가) 굽다’의 ‘굽-’에 모음 ‘-어’가 결합될 때 [구버]가 되는 것처럼, 국어에서 ‘ㅂ’와 모음이 결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굽다’의 ‘굽-’이 동일한 환경에서 [구워]의 ‘구우’로 교체되는 것은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비자동적 교체)이다.

3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 ① ‘가구’의 두 ‘ㄱ’는 하나의 동일한 음운이다. **1.문단**
- ②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준다. **x**
- ③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1**
- ④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2**
- ⑤ 교체는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다. **3**

36. 윗글을 바탕으로,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

	<자료1>	<자료2>
㉠	바지, 후보	○잡+아[자바], 잡+는[잡는], 잡+고[잡꼬] ○츙+어[추위], 츙+은[추운], 츙+고[츙꼬]
㉡	더위, 온도	○달+아[다다], 달+는[단는], 달+고[달꼬] ○뜰+어[드러], 뜰+는[든는], 뜰+고[뜰꼬]
㉢	거위, 인고	○떡+어[머거], 떡+는[멍는], 떡+고[떡꼬]

- ① ㉠의 ‘후보’의 [ㅂ] **유성**과 달리, ㉠ ‘바지’의 [ㅂ], **무성** ㉡ ‘온도’의 [ㄷ], **유성** ㉢ ‘인고’의 [ㄱ] **유성**는 모두 무성음으로 실현된다.
- ② ㉠의 ‘잡+아[자바], 잡+는[잡는], 잡+고[잡꼬]’에서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리 나타난 ‘잡’과 ‘잡’은 서로 다른 형태소 **한 형태소의 이형태**이다.
- ③ ㉡의 ‘더위’와 ㉢의 ‘거위’에서 ‘ㄷ’와 ‘ㄱ’는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고, **ㅇ** ㉢의 ‘떡’과 ‘멍’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o**
- ④ ㉡에서 [단는]의 ‘단’, [드러]의 ‘뜰’ **x** [든는]의 ‘든’은 모두, 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 ⑤ ㉢의 [멍는]의 ‘멍’, **자동적 교체** ㉠의 [추운]의 ‘추우’는 모두, 비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37. ㉠~㉣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랑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 건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 ㉣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

- ①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은 ㉠, **은** ㉡ **나**이다.
- ②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를 포함한 문장은 ㉡, **아주** ㉢ **x**이다.
- ③ 대등적 연결 어미로 겹문장을 나타낸 문장은 ㉢, **지만** ㉣ **고**이다.
- ④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진행상을 나타낸 문장은 ㉠, **-고 있-** ㉢ **-어 가-**이다.
- ⑤ 필수적 부사어는 ㉠~㉣ 모두에 한 개 이상씩 포함되어 있다. **노을 빛으로, 고객에게, 봉사 활동에, 집에, 마당에는**

38. <자료>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이고 ①②번, ㉠이고 ③번, ㉣ 있고 ④⑤번을 본다.

〈보기〉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의문문을 실현하는 종결 어미와 보조사가 각각 달리 나타났다. (‘누’, ‘엇던’ 등 의문사가 사용된 설명 의문문에서는) 용언 어간에 종결 어미 ‘-뇨’가, 체언 바로 뒤에는) 보조사 ‘고’가 결합하였다. 반면,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냐’와 보조사 ‘가’가 사용되었다. 한편, (종결 어미 ‘-나다’는)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서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가 쓰였다.

㉠ [중세 국어] 네 스승이 누구
[현대 국어] 네 스승이 누구인가?
㉡ [중세 국어] 阿難이 마리 외디 아니하녀
[현대 국어] 아난의 말이 그러지 아니하느냐?
㉢ [중세 국어] 그되 엇던 사르민다
[현대 국어] 그대 어떤 사람이나?

- ① ㉠: 보조사 ‘고’가 체언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군.
- ② ㉠: 보조사 ‘고’가 의문사 ‘누’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설명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 ③ ㉡: 종결 어미 ‘-녀’가 용언 어간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군.
- ④ ㉢: 종결 어미 ‘-나다’가 상대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판정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 ‘엇던’->의문사->설명 의문문
- ⑤ ㉣: 종결 어미 ‘-나다’가 2인칭 주어가 실현된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

39. <자료>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어떤 말을 의미를 고려하여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예컨대 ‘볶음밥’은 ‘쌀밥에 여러 재료를 볶아 만든 음식’이라는 의미에 따라 먼저 어근 ‘볶음’과 어근 ‘밥’으로, ‘볶음’은 다시 어근 ‘볶-’과 파생 접사 ‘-음’으로 분석되므로 ㉠파생 후 합성이 된 단어이다. 이 외에도 ㉡파생 후 파생, ㉢합성 후 파생, ㉣합성 후 합성의 방식으로 단어가 형성될 수 있다.

㉠ 놀이마당: 여럿이 모여 노래하거나 춤추며 노는 자리.
㉡ 콩나물국: 콩나물을 넣고 끓인 국.
㉢ 거짓말투성이: 온통 거짓말뿐인 것.
㉣ 헛소리꾼: 실속이 없고 미덥지 아니한 말을 잘하는 사람.
㉤ 웃음꽃: 꽃이 피어나듯 환하고 즐겁게 웃는 웃음.

- ① ㉠은 ‘놀이’와 ‘마당’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
- ② ㉡는 ‘콩나물’과 ‘국’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
- ③ ㉢는 ‘거짓말’과 합성 ‘-투성이’ 접사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
- ④ ㉣는 ‘헛-’과 ‘소리꾼’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헛소리꾼 ㉣
- ⑤ ㉤는 ‘웃음’과 ‘꽃’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

매체 문제는 바로 아래에 있는 '매락 발문'을 읽은 후, 각 문제의 발문들을 먼저 읽는다. 각 문제가 요구하는 기호가 있는 곳에 문제번호를 써둔다.

(지문 전체에 걸쳐 있는 ㉠~㉣이나 ㉤~㉧을 묻는 문제는 항상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풀면 되므로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40~43] (가)는 라디오 방송이고, (나)는 (가)를 청취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는 중)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식 한 입'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댓글을 통해 언제든지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상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장비에 대해 전문가를 모셔서 알아보려 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전문가: 안녕하세요, □□ 대학교에서 기상학을 연구하는 이 ○입니다.

진행자: ㉠교수님, 기상 정보를 수집하려면 관측부터 해야겠지요?

진행자: 관측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문가: 지상에 위치한 관측 장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그중 'AWS'는 지상 부근의 다양한 대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지상에서만 관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 맞습니다. 지상에서 관측하기 어려운 상공은 '기상 항공기'를

활용하여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태풍, 집중 호우, 폭설 등 기상 위험 요인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죠.

민트초코 기상 항공기에 사람은 몇 명이나 탈 수 있나요?

진행자: ㉡민트초코 님이 탑승 가능한 인원에 대해 물으시네요.

전문가: 국내 도입 기종은 5명이 탑승할 수 있고, 약 6시간 비행 가능합니다. 기상 항공기 소개 영상이 있는데, 라디오 방송이라 보여 드릴 수가 없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 기상 연구소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또 소개해 주실 관측 장비가 있을까요?

전문가: '레윈존데'라는 장비는 기상 항공기가 올라갈 수 없는 35 km 상공까지 올라가며, 하루에 2~4회 기온, 습도 등을 관측합니다.

새싹 와, 35km 상공까지 어떻게 올라가나요?

진행자: 새싹 님이 어떻게 35 km까지 올라가는지 물으시네요.

전문가: (양손으로 둥근 모양을 만들며) 구상의 기구에 매달려 올라갑니다.

진행자: 지금 교수님께서 손으로 공 모양을 만드셨는데, 구상은 동그란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가: 네, 풍선 형태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 위성인 '천리안2A호'가 지구를 10분마다.

우리나라를 2분마다 관측하고 있습니다.

둥이맘 많은 장비를 활용하니 수집되는 자료 양도 엄청나겠네요.

햇살가득 수집된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진행자: 수집된 자료에 관한 댓글들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관측 장비가 많으니 자료 양도 많을 터인데,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문가: 정말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수집됩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활용됩니다. 자료를 슈퍼컴퓨터로 전송하면, 슈퍼컴퓨터는 여러 수식을 활용해 예상 일기도를 생산합니다. 한편 수집된 자료는 세계 기상 통신망으로…….

진행자: 정규 방송을 마칠 시간이라 세계 기상 통신망에 대한 내용은 온라인 방송에서 이어 갈까 하는데, 교수님 괜찮으실까요?

전문가: 네, 그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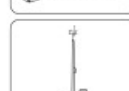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뵈겠습니다. 4.0 41

(나) 42


민트초코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어제 '상식 한 입' 들으셨나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정규 방송과 온라인 방송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규 방송의 내용

- 관측 장비 한눈에 보기
 -  우리나라를 2분마다 관측하는 천리안2A호
 -  35km 상공까지의 기온, 습도 등을 관측하는 레윈존데
 -  기상 위험 요인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상 항공기
 -  지상 부근의 다양한 대기 상태를 관측하는 AWS

[참고] 기상 항공기 소개 동영상

 출처: △△ 기상 연구소 누리집

○ 분석 장비 - 슈퍼컴퓨터
많은 양의 자료를 여러 수식으로 분석해 일기도를 생산하는 장비

더 알고 싶다면? 클릭!  슈퍼컴퓨터 관련 정보 바로가기 (센터 누리집)

2. 온라인 방송의 내용 - 세계 기상 통신망
180여 개국에서 보내온 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배포하는 통신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40.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끝에 문제번호 40 써두기. 주로 선택지 순서와 지문의 내용장해 순서가 일치하므로 ①번 선택지를 읽어둔 후 관련 내용을 읽게 되면 그때그때 와서 푸는 게 빠르다.

- ① 진행자는) 도입부에서 음악을 배경으로 청취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 ② 전문가는 청취자의 질문에 답변하며 청취자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하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전문가의 손동작을 말로 설명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서로 관련 있는 댓글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전문가에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진행자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정보를 요약해서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41. 다음은 (가)에 대한 청취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청취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끝에 문제번호 41 써두기

청취자 게시판
수정과: 기상 박물관에 체험 학습을 다녀와서 기상 정보에 관심이 생겼는데, 방송을 통해 기상 관측 장비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어요. 다만 AWS, 레원존데 같은 장비들 이름이 어렵네요.
별님달님: 지상뿐 아니라 상공에서도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그런데 해양 기상을 관측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바다는 어떤 장비로 관측하는지 궁금해 도서관에서 찾아보려고요.
봄날: 천리안2A호는 어떤 종류의 위성인지 궁금하네요. 기상 관측 위성에도 종류가 있다고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 ① '수정과'는 진행자가 도입부에 언급한 방송의 주제에 주목하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방송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
- ② '수정과'는 방송에서 제시한 기상 관측 장비의 명칭에 주목하여, 표현의 정확성을 지적하고 있다.
- ③ '별님달님'은 관측 장비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주목하여, 향후 관측 장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 ④ '별님달님'은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은 내용에 주목하여, 관측 장비와 관련한 정보의 탐색을 계획하고 있다.
- ⑤ '봄날'은 방송에 언급된 기상 관측 위성에 주목하여, 자신의 배경지식과 방송 내용의 차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2.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나)기호 바로 옆에 문제번호 42 써두었다가, 지문 읽다가 이 문제번호를 만나면 이 문제로 와서 확인해야 할 요소를 표시해 가며 읽고, (나)지문에서 찾아 정보 표시하기

- ① (가)에서 라디오 매체의 제약으로 제시하지 못한 자료를, (나)에서 동영상으로 제시해야겠어.
- ② (가)에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 다루기로 언급한 내용을, (나)에서 정규 방송의 내용에 이어서 제시해야겠어.
- ③ (가)에서 전문가가 소개한 관측 장비들을, (나)에서 관측 주기를 기준으로 배열한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 ④ (가)에서 제시된 분석 장비와 관련된 내용을, (나)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와 함께 제시해야겠어.
- ⑤ (가)에서 전문가가 관측 장비의 특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나)에서 관측 장비에 대한 설명에 활용하여 제시해야겠어.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풀 예정이므로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 ① ㉠: '-려'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전문가에게 기상 정보와 관련한 장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지'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자신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③ ㉢: '-(으)시-'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질문의 주체인 민트초코를 높이고 있다.
- ④ ㉣: '터'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관측 자료의 양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⑤ ㉤: '이'를 사용하여 전문가가 자료 분석에 활용되는 슈퍼컴퓨터를 가리키고 있다.

이제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를 풀고, 문제번호 만나면 해당 문제를 풀다.

[40~43] (가)는 라디오 방송이고, (나)는 (가)를 청취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는 중) 안녕하세요, 여러분. 40-① '상식 한 입'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댓글을 통해 언제든지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상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장비에 대해 전문가를 모셔서 알아보려 합니다. -> 어서 오세요, 교수님.

전문가: 안녕하세요, □□ 대학교에서 기상학을 연구하는 이 ○입니다.

진행자: ㉡교수님, 기상 정보를 수집하려면 관측부터 해야겠지요? ->

진행자: 관측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문가: 지상에 위치한 관측 장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그중 'AWS'는 지상 부근의 다양한 대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지상에서만 관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 맞습니다. 지상에서 관측하기 어려운 상공은 '기상 항공기'를 활용하여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태풍, 집중 호우, 폭설 등 기상 위험 요인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죠.

민트초코 기상 항공기에 사람은 몇 명이나 탈 수 있나요?

진행자: ㉢민트초코 님이 탑승 가능한 인원수에 대해 물어시네요. ->

전문가: 국내 도입 기종은 5명이 탑승할 수 있고, 약 6시간 비행 가능합니다. 40-② 기상 항공기 소개 영상이 있는데, 라디오 방송이라 보여 드릴 수가 없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 기상 연구소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또 소개해 주실 관측 장비가 있을까요?

전문가: '레원존데'라는 장비는 기상 항공기가 올라갈 수 없는 35 km 상공까지 올라가며, 하루에 2~4회 기온, 습도 등을 관측합니다.

새싹 와, 35km 상공까지 어떻게 올라가나요?

진행자: 새싹 님이 어떻게 35 km까지 올라가는지 물어시네요.

전문가: (양손으로 둥근 모양을 만들며) 구상의 기구에 매달려 올라갑니다.

진행자: 지금 교수님께서 손으로 공 모양을 만드셨는데, 구상은 동그란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40-③

전문가: 네, 풍선 형태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 위성인 '천리안2A호'가 지구를 10분마다, 우리나라를 2분마다 관측하고 있습니다.

동이맘 많은 장비를 활용하니 수집되는 자료 양도 엄청나겠네요.

햇살가득 수집된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진행자: 수집된 자료에 관한 댓글들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40-④ ㉤관측 장비가 많으니 자료 양도 많을 터인데,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전문가: 정말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수집됩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활용됩니다. -> 자료를 슈퍼컴퓨터로 전송하면, 슈퍼컴퓨터는 여러 수식을 활용해 예상 일기도를 생산합니다. 한편 수집된 자료는 세계 기상 통신망으로.....

진행자: 정규 방송을 마칠 시간이라 (세계 기상 통신망)에 대한 내용은 온라인 방송에서 이어 갈까 하는데, 교수님 괜찮으실까요?

전문가: 네, 그럼요.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40완료, 41





(나) 42

민트초코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어제 '상식 한 입' 들으셨나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정규 방송과 온라인 방송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규 방송의 내용

- 관측 장비 한눈에 보기 42-⑤

	우리나라를 2분마다 관측하는 천리안2A호
	35km 상공까지의 기온, 습도 등을 관측하는 레원존데
	기상 위험 요인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상 항공기
	지상 부근의 다양한 대기 상태를 관측하는 AWS

[참고] 기상 항공기 소개 동영상 42-①



출처: △△ 기상 연구소 누리집

○ 분석 장비 - 슈퍼컴퓨터 42-④
많은 양의 자료를 여러 수식으로 분석해 일기도를 생산하는 장비

더 알고 싶다면? 클릭! > 슈퍼컴퓨터 관련 정보 바로가기 (센터 누리집) 42-④

2. 온라인 방송의 내용 - 세계 기상 통신망 42-②
180여 개국에서 보내온 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배포하는 통신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40.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 ① 진행자는 도입부에서 음악을 배경으로 청취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 아래 ②번 확인한 후 지문으로**
 - ② 전문가는) 청취자의 질문에 답변하며 청취자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하고 있다. **○ 아래 ③번 확인한 후 지문으로**
 - ③ 진행자는) 전문가의 손동작을 말로 설명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아래 ④번 확인한 후 지문으로**
 - ④ 진행자는) 서로 관련 있는 댓글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전문가에게 제시하고 있다. **○ 아래 ⑤번 확인한 후 지문으로**
 - ⑤ 진행자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정보를 요약해서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41. 다음은 (가)에 대한 청취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청취자의 수용 양상 **서술어 중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청취자 게시판

수정과: 기상 박물관에 체험 학습을 다녀와서 기상 정보에 관심이 생겼는데, 방송을 통해 기상 관측 장비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어요**. 다만 AWS, 레윈존데 같은 장비들 이름이 **어렵네요**.

① ②->

별님달님: 지상뿐 아니라 상공에서도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그런데 해양 기상을 관측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바다는 어떤 장비로 관측하는지 궁금해 도서관에서 **찾아보려고요**. ③ ④->

봄날: 천리안2A호는 어떤 종류의 위성인지 **궁금하네요**. 기상 관측 위성에도 종류가 있다고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 ① '수정과'는 진행자가 도입부에 언급한 방송의 주제에 주목하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방송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
- ② '수정과'는 방송에서 제시한 기상 관측 장비의 명칭에 주목하여, **표현의 정확성을 지적**하고 있다.
- ③ '별님달님'은 **관측 장비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주목하여, 향후 관측 장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 ④ '별님달님'은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은 내용에 주목하여, **관측 장비와 관련한 정보의 탐색을 계획**하고 있다. **○**
- ⑤ '봄날'은 방송에 언급된 기상 관측 위성에 주목하여, 자신의 배경지식과 방송 내용의 **차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2.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
- ① (가)에서 라디오 매체의 제약으로 제시하지 못한 자료를, (나)에서 동영상으로 제시해야겠어.
 - ② (가)에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 다루기로 언급한 내용을, (나)에서 정규 방송의 내용에 이어서 제시해야겠어.
 - ③ (가)에서 전문가가 소개한 관측 장비들을, (나)에서 관측 주기를 **기준으로 배열한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 **방법 바꾸기**
 - ④ (가)에서 제시된 **분석 장비와 관련된 내용**, / (나)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와 함께** 제시해야겠어.
 - ⑤ (가)에서 전문가가 관측 장비의 특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나)에서 관측 장비에 대한 설명에 활용하여 제시해야겠어.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 ① ㉠: '-려'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전문가에게 기상 정보와 관련한 장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 ② ㉡: '-지'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자신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 ③ ㉢: '-(으)시-'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질문의 주체인 민트초코를 높이고 있다. **○**
- ④ ㉣: '터'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관측 자료의 양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 ⑤ ㉤: '이'를 사용하여 전문가가 자료 분석에 활용되는 슈퍼컴퓨터를 **자료들을** 가리키고 있다. **대상 바꾸기**

매체 문제는 바로 아래에 있는 '맥락 발문'을 읽은 후, 각 문제의 발문들을 먼저 읽는다.

[44~45] (가)는 문화 탐구 동아리 학생들의 화상 회의이고, (나)는 학생들이 작성한 영상 제작 계획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은찬: 안녕. ㉠다들 내 목소리 잘 들려?

이진, 고은: 안녕. 잘 들려.

채팅 Daehun: 나는 지금 독서실이라 채팅으로만 참여할게.

은찬: 알겠어. 동아리 활동 발표회에서 상영할 세계 기록 유산에 대한 영상 제작을 위해 두 번째 회의 시작할게.

귓속말 Daehun → Eunchan: ㉡내가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회의록 보내줘서 고마워.
Eunchan → Daehun: 😊

이진: 먼저 세계 기록 유산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

채팅 Daehun: ㉢유네스코 누리집에 관련 내용이 있어. 모두에게 화면을 공유할게.
Daehun님이 전체에게 화면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진: 누리집을 보니, 기록 유산은 인류의 지혜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네. 이 내용을 보여 주자.

고은: 응. 기록 유산 보존이 왜 필요한지도 담으면 좋겠는데?

은찬: 기록 유산은 자연재해 등으로 쉽게 훼손될 수 있어서 보존이 필요하대.

고은: 은찬이가 말한, 기록 유산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이 영상에 드러나면 좋겠어.

채팅 Daehun: 맞아. 기록 유산의 특징을 잘 드러내야 할 것 같아.

은찬: Daehun이는 어떻게 생각해?

Daehun: (㉣손가락들을 움직여 타이핑하는 시늉을 함.)

은찬: 아, 이미 채팅을 남겼구나. 앞으로 채팅창 잘 살펴볼게.

채팅 Daehun: 고마워.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세계 기록 유산의 여러 가지 등재 기준에 대해서도 조사했어.

이진: 그래. 기준이 여러 개면 주요 기준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좋겠어.

은찬: 응.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 유산에 대해 말해 볼까?

고은: 이진아, ㉤네가 나한테 출력해 준 자료 보는 중인데, 여기에 관련 내용이 있어. 이거 파일로 갖고 있으면 모두에게 보내 줘.

채팅 Ijin: 이진님이 전체에게 파일을 전송하였습니다.

은찬: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가 세계 기록 유산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네. 아시아에서 제일 많대. 이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작하자.

채팅 Daehun: 마지막 장면은 자막만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게 어때?

고은: 좋아. 그렇게 하면서 영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도록 편집하면 좋겠어.

은찬: 응.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다들 수고 많았어.

(나)

<p>1 </p> <p>자막 과거의 지혜를 현재로 이어 주는 기록 유산</p>	<p>2 </p> <p>자막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기 쉬운 기록 유산</p>
<p>3 </p> <p>자막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 등재 기준</p>	<p>4 </p> <p>자막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 유산' 보유량, 아시아 1위</p>
<p>기록 유산,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소중한 기억</p> <p>(영화의 끝맺음자막처럼 올라가며)</p> <p>자막 기록 유산,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소중한 기억</p>	

44.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읽어 내려가면서 풀기**


- ① ㉠: 효율적인 온라인 회의 진행을 위해, 모두에게 목소리 크기를 조절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② ㉡: 회의의 진행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 귓속말 기능을 활용해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 ③ ㉢: 자신이 찾은 내용을 모두에게 보여 주기 위해, 관련 누리집 주소를 채팅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 음성 언어로 전달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몸짓으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있다.
- ⑤ ㉤: 인쇄물의 형태로 받은 자료의 내용을 모두와 공유하기 위해, 파일 전송을 자료 제공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45. (가)를 반영하여 (나)를 구성했다고 할 때,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 유형의 문제는 각 선택지를 먼저 읽은 후 그림에서 찾는 방식으로 푼다.**

- ① 기록 유산을 통해 인류의 지혜가 계승됨을 보여 주자는 이진의 의견을 반영해, (나)에서 여러 시대의 인물이 손을 잡은 장면을 구성했다.
- ② 기록 유산의 훼손 가능성을 제시하자는 고은의 의견을 반영해, (나)에서 기록 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시각화한 장면을 구성했다.
- ③ 주요 기준을 강조하자는 이진의 의견을 반영해, (나)에서 주요 기준이 적힌 원을 보조 기준이 적힌 원보다 크게 제시한 장면을 구성했다.
- ④ 우리나라에 세계 기록 유산이 많음을 부각하자는 은찬의 의견을 반영해, (나)에서 순위가 적힌 시상대가 포함된 장면을 구성했다.
- ⑤ 영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게 하자는 고은의 의견을 반영해, (나)에서 영화의 끝맺음과 유사하게 장면을 구성했다.

[44~45] (가)는 문화 탐구 동아리 학생들의 화상 회의이고, (나)는 학생들이 작성한 영상 제작 계획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은찬: 안녕. ㉠다들 내 목소리 잘 들려? 44-①->

이진, 고은: 안녕. 잘 들려.

채팅 Daehun: 나는 지금 독서실이라 채팅으로만 참여할게.

은찬: 알겠어. 동아리 활동 발표회에서 상영할 세계 기록 유산에 대한 영상 제작을 위해 두 번째 회의 시작할게.

귓속말 Daehun->Eunchan: 내가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회의록 보내 줘서 고마워.
Eunchan->Daehun: 😊

44-②->

이진: 먼저 세계 기록 유산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

채팅 Daehun: 유네스코 누리집에 관련 내용이 있어. 모두에게 화면을 공유할게.
Daehun님이 전체에게 화면을 공유하였습니다.

44-③->

이진: 누리집을 보니, 기록 유산은 인류의 지혜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네. 이 내용을 보여 주자.

고은: 응. 기록 유산 보존이 왜 필요한지도 담으면 좋겠는데?

은찬: 기록 유산은 자연재해 등으로 쉽게 훼손될 수 있어서 보존이 필요하대.

고은: 은찬이가 말한, 기록 유산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이 영상에 드러나면 좋겠어.

채팅 Daehun: 맞아. 기록 유산의 특징을 잘 드러내야 할 것 같아.

은찬: Daehun이는 어떻게 생각해?

Daehun: (㉡손가락들을 움직여 타이핑하는 시늉을 함.) 44-④->

은찬: 아, 이미 채팅을 남겼구나. 앞으로 채팅창 잘 살펴볼게.

채팅 Daehun: 고마워.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세계 기록 유산의 여러 가지 등재 기준에 대해서도 조사했어.

이진: 그래. 기준이 여러 개면 주요 기준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좋겠어.

은찬: 응.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 유산에 대해 말해 볼까?

고은: 이진아, ㉢네가 나한테 출력해 준 자료 보는 중인데, 여기에 관련 내용이 있어. 이거 파일로 갖고 있으면 모두에게 보내 줘. 44-⑤->

채팅 Ijin: 이진님이 전체에게 파일을 전송하였습니다.






은찬: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가 세계 기록 유산에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네. 아시아에서 제일 많대. 이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작하자.

채팅 Daehun: 마지막 장면은 자막만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게 어때?

고은: 좋아. 그렇게 하면서 영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도록 편집하면 좋겠어.

은찬: 응.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다들 수고 많았어.

(나)

 <p>1</p>	 <p>2</p>
<p>자막 과거의 지혜를 현재로 이어 주는 기록 유산</p>	<p>자막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기 쉬운 기록 유산</p>
<p>3</p> <p>주요 기준</p> 	<p>보조 기준</p> 
<p>자막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 등재 기준</p>	<p>4</p>  <p>대한민국 1 중국 2 인도네시아 3</p> <p>자막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 유산' 보유량, 아시아 1위</p>
<p>5</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기록 유산,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소중한 기억</p> </div> <p>(영화의 끝맺음자막처럼 올라가며)</p> <p>자막 기록 유산,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소중한 기억</p>	

44.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 ① ㉠: 효율적인 온라인 회의 진행을 위해, 모두에게 목소리 크기를 조절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X
- ② ㉡: 회의의 진행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 귓속말 기능을 활용해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X
- ③ ㉢: 자신이 찾은 내용을 모두에게 보여 주기 위해, 관련 누리집 주소를 X 화면을 채팅으로 전달하고 있다. 대상 바꾸기
- ④ ㉣: 음성 언어로 전달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독서실 문정으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있다. X
- ⑤ ㉤: 인쇄물의 형태로 받은 자료의 내용을 O/ 모두와 공유하기 위해, O/ 파일 전송을 자료 제공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O

45. (가)를 반영하여 (나)를 구성했다고 할 때,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

- ① 기록 유산을 통해 인류의 지혜가 계승됨을 보여 주자는 이진의 의견을 반영해, (가)이진 말에서 확인 후 O/ (나)에서 여러 시대의 인물이 손을 잡은 장면을 구성했다. O
- ② 기록 유산의 훼손 가능성을 제시하자는 고은의 의견을 반영해, O/ ->계획 2에서 (나)에서 (기록 유산의 역사적 의의를) 시각화한 장면을 구성했다. 대상 바꾸기
- ③ 주요 기준을 강조하자는 이진의 의견을 반영해, O/ (나)에서 주요 기준이 적힌 원을 보조 기준이 적힌 원보다 크게 제시한 장면을 구성했다. ->계획 3에서 O
- ④ 우리나라에 세계 기록 유산이 많음을 부각하자는 은찬의 의견을 반영해, O/ (나)에서 순위가 적힌 시상대가 포함된 장면을 구성했다. ->계획 4에서 O
- ⑤ 영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게 하자는 고은의 의견을 반영해, O/ (나)에서 영화의 끝맺음과 유사하게 장면을 구성했다. ->계획 5에서

수능국어의 매뉴얼, 「10하원칙」 문제풀이법과 풀이순서, 교재구성
특허출원번호 10-2023-0052996